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미츠이스미토모해상 등 3사, 지주회사로 통합계획 발표

□ 일본의 주요 손해보험회사인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홀딩스(업계 2위), IO손보(업계 4위), 닛세이도와손보(업계 6위) 등 3사는 내년으로 예정된 최종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최근 발표함.

- 통합으로 탄생할 새 지주회사의 이름은 3사의 머릿글자를 조합하여 MS&AD보험 그룹홀딩스(MS&AD Insurance Group Holdings Inc.)로 하며, 현 미츠이스미토모해상 사장이 초대 대표이사를 맡게 됨.
- 통합형태는 미츠이스미토모해상이 주도해 만든 지주회사 산하에 IO손보와 닛세이도와손보가 주식교환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하며, 주식교환 비율은 미츠이스미토모해상 : IO손보 : 닛세이도와손보 = 1 : 0.190 : 0.191로 최종 합의함.
- 통합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2013년에 총수입보험료 및 이익 규모가 각각 약 2조 7천억엔, 1,500억엔으로 업계 최대보험회사(세계 7위 수준)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, 매년 약 400억엔(2008년 대비)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통합 3사 사업 포트폴리오 (단위 : 십억엔)

항 목	FY2008	FY2009(추정치)	FY2013(목표치)
통합 3사 전체 이익	-27.1	41.0(100%)	150.0(100%)
- 일본 내 손보사업 이익	7.6	26.6(65%)	100.0(67%)
- 일본 내 생보사업 이익	-3.6	1.5(4%)	15.0(10%)
- 해외사업 이익	-28.6	12.0(29%)	30.0(20%)
- 재무 및 리스크 관련 서비스사업 이익	-2.4	0.9(2%)	5.0(3%)

자료 : AM Best Week(2009.10.9)

□ 3사는 예정된 합병일정을 늦추면서까지 공동 상품개발 및 업무 시스템 일원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함.

- IO손보와 닛세이도와손보 양 사는 당초 새로운 지주회사가 생기는 2010년 4월에 합병하기로 했으나, 통합상품 및 업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최종 합병일자를 2010년 10월 1일로 연기함.
- 한편, 3사는 2014년 4월 최종 시스템 통합까지 약 700억엔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,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로 함.

(마이니치신문, 9/30 · 후지산케이신문, 10/1 · AM Best Week, 10/9)